

설명절 예배문

사도 신경 다 같이

찬 송 438장(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같이

1.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대 표 기도 말 은 이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5:1-11(신약 174쪽) 인 도 자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
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설 교 말 씀 참된 생명에 잇대어 살다! 인 도 자

2026년 새해를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시고,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가지에게 있어 열매를 잘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가지가 뿌리와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탐스러운 가지라도 나무 본체에서 꺾여 나가는 순간, 그 가지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잠시
동안은 푸르게 보일지 몰라도, 공급받는 생명이 끊어졌기에 결국 말라비틀어지고 맙니다. 사람
들은 저마다 행복한 삶, 열매 맺는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에 자신을 연결(Link)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탱해 줄 튼튼한 나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인생의 참된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즉 연결되어야만 사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야 합니까? 세상의 썩어질 동아줄이 아니라, 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연결(Link)'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흘러들어와
저절로 잎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랑, 내 성격으로는
불가능했던 용서와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2026

설명절 감사예배

많은 가정이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단절의 아픔을 겪곤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간에 대화가 끊기고 마음이 닫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힘으로만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고갈된 사랑으로는 다른 식구를 품을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인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께 연결되고, 어머니가 기도로 주님과 잇대어 있을 때, 그 풍성한 사랑의 수액이 자녀들 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과 연결된 가정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돈, 권력, 명예에 연결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쉬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유한한 것들일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주님께 잘 붙어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 가족들도 서로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통해 흐르는 은혜가 우리 가족 서로를 묶어주는 사랑의 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명절, 우리 가족 모두가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께 다시금 깊이 연결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 송 442장(저 장미꽃 위에 이슬) 다 같 이

1.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2.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3. 밤 깊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신다

후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 기도 문 다 같 이